

Finsterlin, Hermann
1924

模倣을 그만두라. 이미 있었던 것은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되풀이 된 것은 언제나 弱하고 退化되며 너를 속일 뿐이다.

建築이란 空間體驗이다. 그것은 環境이라는 原始林 속의 發創이고, 發明이며, 魂의 메아리의 明瞭한 自覺이다.

Le Corbusier
1925.

믿는가, 믿지않는가. 믿는 것이 보다 낫다. 行動하는가. 休息하는가. 行動하는 편이 낫다.

젊고 健康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創造할 수 있는 可能性을 意味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을 만들려면, 經驗의 年數가 必要할 것이다.

人間은 目的을 가지는 까닭으로 곧 바로 나간다. 人間은 自己가 어디에 가는가를 알고있다. 行先地를 정하고, 그 方向을 곧바로 나가는 것이다.

Gropius, Walter
1926.

現代人은 現代의 옷을 걸치고 있으며, 決코 過去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므로, 日時에 現代에 어울리는 日常品을 갖춘, 現代에 맞는 住居를 要求하고 있다.

物件은 그 本質에 依해 決定된다.

물건이 옹게 機能할 수 있도록 形成되려면, 一椅子든 집이든—우선 最初에 그 本質이 調査되야 한다. 即, 그 機能을 實際로 잘 發揮하며. 堅固하고 옹으며, 그리고 아름다와야 한다.

이러한 本質의 研究의 結果,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即, 現代의 여러가지 生産方式, 構造, 材料를 깊이 考察하므로써, 在來의 것과는全然 다른 形態, 平凡하지 않고 놀라운만한 形態가 태어난다는 것이다.

Mies van der Rohe,
Rudwig
1927.

나는 形式에 反對 하는것이 아니다.

다만, 目的으로서의 形式에 反對할 따름이다. 目的으로서의 形式은 언제나 形式主義에 끝난다. 이러한 努力은 内部로가 아니고 外部로 向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生命에 있는 内部가 있으므로써, 비로써 生命이 있

는 外部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生의 強함 뿐이 힘찬 形式을 갖는다. 어떻게? 라는 方法은 무엇을? 이라는 內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形式이 없는 것은 形式의 過剩보다 나쁜 것이 아니다. 前者는 無이며, 後者는 廢構이다. 참다운 形式은 참다운 生을 前提로 한다.

註 建築은 造形이다. 새로운 造形은 새로운 個性을 낳는다. 그래서 建築을 어떻게 하여 아름다운 立面을 꾸밀까하고 생각하는 作家가 많다.

—平面은 둘째 쳐놓고—, 아름다운 立面이 될 수 있도록 平面을 構想한다. 이런 作家에게는 (나는 그를 作家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平面은 二次的인 問題다. 그저 立面, 그것도, 正面만이 머리에 있을 따름이다. 平面이 신통치 않다는 것은 즉, 그 空間의 生活이 제대로 이룰수 없다는 것이다.

「미스」가 말하는 生命있는 内部란, 機能에 充實한, 그래서 生活이 있는 空間을 말한다. 이러한 스타일의 立面을 잡자, 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삶이 있는, 그래서 充實한 平面— 内部空間을 創造하라고, 「미스」는 警告하고 있다.

CIAM 과 사라宣言

1928.

建築이란 人間의 基礎的인 活動이며, 넓고, 깊게, 우리들의 生活의 創造의 發展에 關与한다. 그러므로 建築家의 使命은 스스로 時代의 偉大한 事實과 所屬하는 社會의 目的과 調和시켜 이에 따라 作品을 形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過去의 時代든가, 過去의 社會構造의 形成原理를 자기의 作品에 轉用하는 것을 拒否한다. 이와 反對로 建築의 課題에 對해 時代에 따른 새로운 解釋과 實際的, 精神的要求의 創造的인 解決을 해야 한다.

Wright, Frank Lloyd

1930.

近代建築은 젊은 建築이다. 그것은 젊음의 기쁨을 創造해야 한다. 建築은 科學的인 것 보다는 오히려 知覺的인 것으로서 航空機에 닮은 것 보다는 想像力의 傑作에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집은 살기 위한 機械지만 建築이라는 것은 이러한 집에 처한 생각이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 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라.

機械는 오직 生命을 위한 機械일 뿐이다. 따라서 機械에서 生命으로 合理化시켜서는 안된다. 왜 生命에서 出發하여 機械를 생각하도록 하지 않는가?

註 「라이트」가 젊은 建築家들에게 주는 助言이다. 世界의 建築을 잊으라. 建築의 學校工夫를 멀리하라. 建築現場으로 달려가라. 스스로 묻고(問), 分析하는 癖慣을 키워라. 事象을 單純化하여 생각하라. 建築의 「콤포」에는 決코 參加하지 말아라. 等等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Kiesler Frederick
1947.

造形藝術의 새로운 現實性은 五官의 知覺에만 依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心理的인 要求를 考慮한 事象의 相互關係다. 建築에 있어서의 近代機能主義는 죽었다.

註르· 꼬르뷔제, 바우하우스 等의 機能主義는 機能의 밑바닥까지 파헤치지 못했다고 痛烈한 批判이다.

Mies van der Rohe,
Rudwig

1950.

技術의 뿌리는 過去에 있다. 그것은 現代를 支配하고, 未來에 손을 뻗친다.

技術은 그저 希臘人에 依한 個性의 發見, 로마人的 權力에의 意志, 中世의 宗教的인 움직임 등과 全無關係이다.

技術은 單純한 方法以上の 것이며, 그것은 한 世界 그 自体다. 예를 들면 巨大한 工學的 建造物에 있어서처럼 技術이 완전히 放任되 있을때 그것은 비로서 참다운 性質을 나타낸다.

그때 技術이 단지 有用한 手段뿐만이 아니라 獨自的인 것이며, 하나의 뜻을 가지는 存在며 한 強力한 形式인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것은 아직 技術인가? 또는 建築인가?

技術이 現實로 實現될 때, 技術은 建築의 領域으로 昇華된다. 技術과 建築은 密接한 關係에 있다. ‘우리들의 참다운 所望은 이 두가지를 結合하는 것이며, 언젠가 한편이 또다른 한쪽의 表現이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참다운 建築을 가질 것이다.

註「꼬르뷔제」를 爲始해서 技術은 建築을 創作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手段에 지나지 않으며 技術만으로서는 建築이 될 수 없다는 作家가 많다. 아마도 大部分의 建築家가 이러한 流派에 屬할 것이다. 「꼬르뷔제」는 自己의 主構造體가 完成된 後 「자, 이제부터 建築이 始作된다」고 그의 아틀리에의 弟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技術은 建築創造에 奉仕하는 노예로 생각했다. 그러나 「미스」는 所謂建築이 없는 巨大한 建造物(예컨대, 스케일을 초월하는 댐 에펠탑 等)도 表現이 있으므로 그 自体 建築이 아닌가? 하고 反問하며 技術만으로도 建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참다운 建築이란 技術과 建築이 完全히 融合된 것을 말한다는 뜻이겠다.

Hundertwasser
1958.

繪圖와 彫刻은 오늘날에 있어서 自由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作品을 만들어 그後 展示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建築의 경우는 모든 藝術의 條件으로 여기는 이 根本的인 自由가 없다. 왜냐하면 建築하려면 우선 大學卒業의 資格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가 모두 다 建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建築의 自由가 없는한 現在 세 워진 建築도 一般的으로 藝術에 넣을 수 없다.

스람街의 物的인 面에서의 不便함은 機能的이고 便利한 建築의 道德的인 意味에서의 살기 不便함보다 낫다. 所謂 스람街에서는 人間의 肉體가 亡할 뿐이지만, 人間을 爲한답시고 지은 建物에서는 人間의 魂이 滅亡한다.

直線은 神을 배반하는 것이며, 非道德的인 것이다. 直線은 決코 創造的인 線이 아니고 複製的인 線이다. 거기에는 神이나 人間精神이 있는 것이 아니다.

構成的 機能的인 建築家들은 아름다운 집들을 破壞하고 그들의 空虛한 形態를 지었다. 「미스」「노이트라」「바우하우스」「그로피우스」「쥘손」「꼬르뷔제」의 建築들은 허물어 버려야 한다. 機能的인 建築을 道德的인 荒廢

에서 救出할려면 깨끗한 유리의 壁이나 미끄러운 콘크리트面에 墮敗劑를 쳐서 그面에 곰팡이가 繁殖하도록 해야한다.

註「훈델트왓사」는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그는 「뷔엔나」의 兩家다. 兩家의 눈에 비친 機能主義의 直線的인 建築의 非人間的인 性格은 우리들이 다시금 생각해 볼만한 問題겠다.

그러나, 이 作者의 自由가 없으므로 建築은 藝術이 아니라는 宜言은 너무나 獨斷的인 感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 藝術이다 하고 定義해 놓고 그 定義안에 맞출려고 努力하는 것은 形式主義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藝術이 아닌 것이다. 百步양보해서 이양반이 말하는데로 建築이 藝術이 아니라도 關係없다.

다만 建築이 藝術이라는 것발을 앞세우고, 「체」할려는 것보다는, 建築家는 참다운 建築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藝術이라고 안볼려도 아무런 關係가 없다. 「세익스피어」의 「로미오」가 처음으로 「쥬리엣」을 만난날 밤 고민하는 場面이 생각한다.

「오오, 장미여, 그대 이름은 왜 장미인가. 그대가 장미라는 이름을 안붙여도, 그대의 아름다움은 變함 없는데……」대체 이런 뜻의 文句였지만.

Kahn, Louis
1960.

設計는 질서(秩序)의 테두리에서의 形態形成을 말한다. 形態는 構造의 시스템에서 태어난다. 發展하는 것은 構造다. 「질서」안에는 創造力이 있다.

設計에는 手段이 있다. 무엇에 依하여, 무엇을, 언제, 어느 정도로.

空間의 됴됨은 그것이 本來 되고자 하는 것을 反映하는 것이다. 空間의 됴됨에는 特定の 存在의 精神과 意志가 살아있다. 設計는 이 意志에 따라야 한다.

Hollein, Hans

1962.

建築은 凡人의 要求를 滿足시키는 것이 아니며, 또한 大衆의 자그마한 幸福을 위한 環境도 아니다. 建築은 文化와 文明의 最高段階에서 時代의 進展의 最先端에 서있는 存在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建築은 「에리트」의 作品이다.

建築은 空間을 建築하는 手段에 의하여 決定한다. 建築은 空間을 支配한다.

「메스」와 空虛空間에 依해 空間을 支配한다. 이러한 建築에서는 美는 問題視되지 않는다. 기왕 美를 願한다면 形態나 푸로모손의 美가 아니고, 基本的인 힘의 感覺이다.

우리들은 自由로써 建築한다. 技術에 依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技術을 利用하는 建築 즉 純粹하고 絶體的인 建築을 創造하는 것이다.

註 한마디로 「한스 호라인」이 主唱하는 絶體建築은 그 対象에서 또 人間에서 解放된 無対象의 建築을 말한다.

建築은 그 自身이며, 目的조차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의 스킷취는 完全히 自由스러운 形態의 典型이다.

* * *

以上 여러 宣言을 훑어보면 百家爭鳴의 느낌이다. 心藏이 弱한 建築家は 어느 편의 理倫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지경이니 말이다.

어떤 派들은 서로 完全히 極과 極의 反對로 그 中間을 擇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으니 말이다.

이밖에도 여러 宣言들이 많겠다. 「꼬르뷔제」의 「노미노 시스템」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굳이 실리지 않겠다.

끝.